

한국시리즈 '돈방석'



KIA 우승땀 21억여원 역대 최고 SK 우승땀 14억여원 손에 쥐어

올해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우승팀은 짙은 배당금을 챙길 전망이다.

21일 한국시리즈 4차전까지 올해 포스트 시즌 13경기에서만 총 32만3천262명의 관중이 야구장을 찾았고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입장 수입으로 53억5천973만1천원을 벌어들였다.

5~7차전은 관중 3만명이 운집할 잠실구장에서 열리게에 시리즈 양상에 따라 지난

1995년 기록한 역대 포스트시즌 최다 관중 37만9천978명을 깔 기세다.

입장수입은 이미 지난해 거뒀던 최고액 53억6천57만6천원을 거의 따라잡았다. 5~6차전에서 만원 관중이 들어오면 매경기 4억7천여만원이 들어오기에 60억원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폭발적인 흥행 기록을 세우면서 KIA와 SK 배당금을 가져갈 양팀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KIA가 우승하면 역대 최고액, SK가 우승해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손에 쥘다.

KBO는 포스트시즌 입장 수입 중 최대 40%에 달하는 대회 운영비를 뺀 금액을 1~4위팀에 나눠준다. 정규 시즌 1위 KIA는 20%를 먼저 받고 또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하면 포스트시즌 배당금의 50%를 가져갈 수 있다.

가령 입장수입 60억원을 기준으로 이를 산출하면 운영비 24억원을 뺀 36억원을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4팀이 나눠 갖는다.

KIA는 페넨트레이스 우승 프리미엄으로 36억원의 20%인 7억2천만원을 먼저 가져간다. 나머지 28억8천만원을 놓고 KIA, SK, 두산, 롯데가 배분율에 따라 나누는데 한국시리즈 우승팀은 50%, 준우승팀은

25%, 두산과 롯데는 각각 15%와 10%씩을 받는다.

이에 따라 KIA가 우승하면 나머지 배당금의 50%인 14억4천만원과 먼저 받은 7억2천만원을 보태 21억6천만원을 챙길 수 있다.

이는 지난해 SK가 가져간 역대 최고 배당금(20억6천217만8천285원)을 넘어서는 금액이다. KBO는 지난해에는 정규 시즌 1

위팀에 배당금 중 올해보다 5% 많은 25%를 떼어갈 수 있도록 우대했다. SK가 우승하면 14억4천만원만 손에 쥘다. 지난해 받은 금액에는 못 미치나 2007년 우승할 때 받은 11억4천여만원보다는 많다. 2001년 두산 이후 하위팀이 한국시리즈에 올라와 우승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SK로서는 크게 남는 장사다. /연합뉴스

전남 생활체육 동호인 한마당 잔치

25일 해남서 개막

16개 종목 5천명 참가

전남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한마당잔치인 제21회 도민생활체육대회가 25일부터 3일간 해남우승경기장 등 해남군 일원에서 열린다.

제13회 도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는 '푸른 해남, 밝은 전남, 함께 하는 생활체육'을 주제로 22개 시·군과 서울시 생활체육 동호인 등 5천여명의 선수·입원이 참가해 궁도·배구·배드민턴 등 16개 종목에 걸쳐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전남도도와 전남생활체육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도민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생활체육인 한마당 축제로 승화시키고 동호인들의 자부심 확대를 위해 마련되었다.

전남생활체육회(회장 이탁우)는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 전남이 풍요로운 미래도시로 힘차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자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이번 대회는 14개 정식종목(게이트볼·궁도·배구·배드민턴·볼링·생활체조·씨름·육상·정구·족구·축구·탁구·태권도·테니스)과 시범종목(합기도) 그리고 민속경기(줄다리기)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 개최식은 25일 오후 4시 우승경



제21회 도민생활체육대회가 25일 해남우승경기장에서 개막해 열린 3일에 돌입한다. 사진은 지난해 축구경기 모습.

기장에서 열리며 식전 공개행사도 해남풍물연합회의 길놀이와 우수영 24반의 무예시연, 한국대학응원단협회의 응원공연이, 식후행사에서는 전남도민의 대동단결을 의미하는 강강수월래 한마당이 진행된다.

또 '희망의 시작 땅끝 해남'이란 주제의 TV 특집 축하쇼 형식으로 마련되는 경축행사는 인기가수들이 출연해 행사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다.

우승경기장 주변에는 땅끝해남 관광홍보관과 친환경 해남 특산물·향토 먹거리 장터가 운영되며, 공통 페이스페인팅, 우수영 수문장 및 땅끝 공룡과의 기념촬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계획되어 있다.

시·군별 참가인원은 개최지인 해남군이 246명으로 가장 많으며, 목포시와 화순군이 각각 24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게이트볼에 출전하는 장흥군 위향량

(남·88세)옹이 이번 대회 참가자 중 최고령이며, 태권도에 출전하는 구례군 서수현(여·12세)이 최연소 선수로 밝혀졌다.

한편 전남생활체육회는 이번 대회에 서울 생활체육 동호인 65명을 초청했다. 올해 다섯번째 참가한 서울팀은 김도·당구·배구·테니스 등 4개 종목에 참가하며 해남의 주요 문화시설도 탐방할 계획이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박찬호 월드시리즈 무대 밝는다

필라델피아, 다저스 꺾어

박찬호(36·필라델피아 필리스)가 꿈의 월드시리즈 무대를 밝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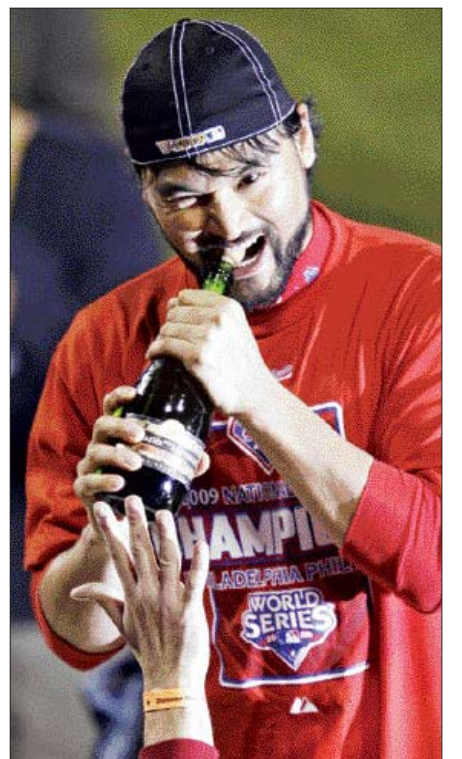
박찬호가 속한 필라델피아는 22일(이하 한국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티즌스뱅크파크에서 계속된 미국프로야구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7전4선승제) 5차전에서 홈런 2발을 포함해 혼자 4타점을 올린 제이슨 워스의 활약에 힘입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를 10-4로 완파했다.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서 우승한 뒤 디비전시리즈에서 콜로라도 로키스를 3승1패로 누른 필라델피아는 이로써 다저스를 4승1패로 제치고 내셔널리그 챔피언에 올랐다. 필라델피아는 작년에도 챔피언십시리즈에서 다저스를 4승1패로 눌렀다.

필라델피아는 오는 29일부터 뉴욕 양키스와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오브 애너하임간의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 승자와 월드시리즈(7전4선승제)를 벌인다. 양키스가 3승1패로 앞서 있다.

필라델피아는 통산 7번째 월드시리즈에 올라 1980년과 작년에 이어 3번째 월드시리즈 챔피언을 꿈꾼다.

박찬호는 이날 경기에서 필라델피아가 8-3으로 앞선 7회초 등판한 한 이닝을 끝까지 처리한 뒤 8회에도 마운드에 올랐지만 2안타를 맞고 주자 둘을 남겨놓고 내려갔다. 1이닝 1실점. 1994년부터 빅 리그에서 뛰던 박찬호는 개인 통산 16번째 시즌 만에 처음 월



박찬호가 22일(한국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티즌스뱅크파크에서 삼페인의 병마개를 따며 팀의 월드시리즈 진출을 축하하고 있다.

드시리즈 무대에 올랐다. 샌디에이고 파드레스 유니폼을 입고 있던 2006년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에 나갔고 작년 다저스 소속으로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에 출전했지만 월드시리즈와는 인연을 맺지 못했다. /연합뉴스

“국내 유망주들 K-리그 외면에 충격”

홍명보 올림픽 대표팀 감독 기자회견

“유망주들이 K-리그 진출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게 충격적이다. 개인과 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축구의 발전을 생각해야 한다”

홍명보(40)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이 국내 유망주들의 일본 프로축구 J-리그 진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더불어 K-리그 드래프트 제도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홍 감독은 22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협

회 대회실에서 치러진 기자회견을 통해 “200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을 경험한 선수들이 2012년 런던 올림픽 때까지 어떤 팀에서 뛰는지 잘 지켜봐야 한다”라며 “계속해서 아마추어 리그에 있거나 해외팀에 진출해 관심 받지 못하고 2군에서 뛰고 있다면 솔직히 한국축구의 발전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선수들이 외국에서 실적을 맞보지 않도록 K-리그 차원에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권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으며 운동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K-리그에서 시행하는 신인선수 드래프트 제도(1순위 연봉 최고 5천만원)로 인해 유망주들이 K-리그를 꺼리고 상대적으로 돈을 더 많이 주는 J-리그에 진출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느낀 아쉬움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

홍 감독은 “U-20 대표팀에도 4명이 일본에서 뛰고 있고 현재 너댓명 정도가 J-리그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라며 “개인적으로 이들이 K-리그에서 뛰었으면 좋겠다.”

아직 어리고 K-리그에서도 배울 게 많다. 일본에서 뛰는 것은 앞으로 구성될 올림픽 대표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 놀라운 선수들이 K-리그 진출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부 J-리그 진출만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라며 “K-리그에서도 좀 더 많은 유망주가 K-리그에서 뛰도록 노력하고 유소년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드래프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합뉴스

양용은 꼴찌하고 상금 20만달러

PGA 그랜드슬램 골프대회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이저대회 우승자만큼 모여 치르는 PGA 그랜드슬램 골프대회에서 최하위인 4위에 그쳤다.

양용은은 22일(한국시간) 버뮤다 사우스프린의 포트 로열 골프장(파71·6천824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2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이글 1개를 뽑아냈으나 보기도 4개가 나와 1타를 줄이는데 그쳐 최종합계 1언더파 141타를 기록했다.

3위 스투이트 싱크(미국)에게도 4타를 뒤진 양용은은 4위 상금 20만 달러를 획득하

는데 만족해야 했다. 양용은은 전반에 버디 2개, 이글 1개로 4타를 줄이며 기세를 올렸으나 후반에 버디는 1개에 그치고 보기가 4개를 쏟아내며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했다.

올해 US오픈 우승자 루카스 길로버(미국)가 11언더파 131타로 우승해 상금 60만 달러를 손에 넣었다. 마스터스 챔피언 양헬 카브레라(아르헨티나)가 6언더파 136타로 준우승했다.

PGA 그랜드슬램은 4개 메이저대회 우승자들이 모여 2라운드 우승자를 가리는 이벤트 대회로 우승자에게 상금 60만달러, 2위 30만달러가 주어지며 3위 25만달러, 4위 20만달러의 상금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National Hearing Aid) featuring a horse and rider illustration. Text includes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